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해

-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 실시 -
- 취임 이후 정책현장에서 만난 아동들 초청해 재회 약속 지켜 -
- 국무회의 생중계되는 세종실·충무실서 미래세대 기대 전해 -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국의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내외가 참석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비서실 강훈식 비서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안귀령 부대변인 등 참모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올해 행사는 3년 7개월여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의 첫 어린이날 기념 행사로 청와대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인구소멸지역 거주 아동,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그간의 정책현장 방문 시 만났던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과 지난 해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를 통해 만났던 아동들도 참석하였다. 이 대통령은 처음 만났던 아동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어린이날을 계기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아동들은 청와대 본관을 견학하며 청와대의 역사와 청와대 복귀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인 세종실과 임명식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충무실이 개방되었다. 세종실과 충무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며 온 국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세종실에서 아이들의 꿈을 묻는 등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 사진도 찍으며,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곳에서 대한민국의 더 밝고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가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내외를 만난 어린이들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며, “대통령 아저씨를 실제로 만나 신기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들은 녹지원으로 장소를 이동해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녹지원에서는 그네와 꼬마비행기 등이 설치되었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킵케이크 만들기, 손씻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녹지원에서도 어린이들과 페이스 페인팅,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함께한 이 대통령 내외는 함께 참석한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아동수당을 만 13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귀가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을 시작하였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보호체계 구축,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아동존중 문화 조성 등 정책추진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하며,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황신자 (044-202-3415)

